10.15686/fkl.2018..44.83

〈자기록〉에 나타난 여성의 자아 인식과 글쓰기의 수행적 의미

김정경 *

차례

1. 머리말
2. 타고나는 자아와 만들어지는 자아
3. 사회적 쓸모와 사적인 친밀감
4. 참여로서의 글쓰기와 물러남으로서의 글쓰기
5. 맺음말

〈국문초록〉

이 글에서는 <자기록>의 작자가 무엇을 썼는가라는 문제와 함께 쓰는 행위의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답해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자기록>에 나타난 작자의 모순적인 자기 인식의 양상을 검토하고, 이를 '글쓰기' 행위 자체의 수행적 의미와 연결지어보았다.

먼저 2장에서는 <자기록>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남편의 죽음'에 관한 부분을 시가와 친가의 대립적 태도와 병렬적 서술 양상을 중심으로 검토했다. 그 결과 남편의 치료에 대한 시가와 친가의 대조적인 대응은 운명에 대한 상반되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으로 읽을 수 있으며, 표면적으로 시가에 대한 부정적인 언급이 두드러지는 것과는 다르게, 텍스트는 운명에 순응하는 삶과 운명을 개척하는 삶 가운데 어느 것이 옳다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보았다.

* 인천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조교수

3장에서는 조씨가 죽음이 아닌 삶을 선택하는 과정이 아들/딸, 남편/아내의 대립을 통해 드러난다고 보고 그 양상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자기록>에 나타난 궁극적인 갈등은 남성/여성의 대립이 아닌, 삶의 의미를 공적인 관계, 즉 쓸모에서 찾는가 아니면 사적인 친밀감에서 찾는가라는 질문에서 비롯함을 알았다. 조씨는 사회적 관계 속에서 자신의 삶-투생-과 죽음-종사-의 이유를 찾는 한편으로, 사적인 관계 속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한다는 것이다.

앞서 <자기록>에는 주어진 것이면서 사회적인 것으로 이해되는 자아와 함께, 만들어진 것이면서 개인으로 이해되는 자아, 즉 그 본성을 개인의 특정 행위를 통해 이해하는 자아에 대한 인식이 담겨있다는 점을 주로 살펴보았다면, 4장에서는 이러한 논의들을 조씨의 글쓰기 행위 그리고 글쓰기 주체로서 자신을 인식하는 방식과 연결해보았다.

그 결과 조씨에게 글쓰기는 삶으로부터의 물러남이라는 의미에서 종사와 같고 물러남이라는 행위의 적극적 실천이라는 의미에서 투생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녀의 글쓰기 방식은 곧 그녀의 삶의 방식과 같아서 글쓰기 과정이 곧 의심과 회의의 과정이고 그것이 죽음도 삶도 택하지 못한 조씨의 처지 자체라는 것이다. 또한 조씨가 글쓰기 주체로서 자신을 인식하는 것 역시 공적인 요구와 필요에 따라 글을 쓰는 주체와 개인적 감정이나 생각의 표현 그것 자체로 자신의 정체성을 획득하는 주체를 동시에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결론적으로 조씨에게 글쓰기가 갖는 수행적 의미는 자신의 행위와 존재의 모순적이고 양가적인 양상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것이며, 따라서 기록을 멈춘다는 것은 곧 삶을 멈추는 것을 의미한다.

핵심어 : 자기록, 풍양 조씨, 자기서사, 수행적 의미, 열녀, 종사, 투생

1. 머리말

<자기록>은 18세기 후반 서울에 살았던 무반 집안의 딸 풍양 조씨(1772-1815)가 한글로 쓴 자기 삶의 기록으로 조씨 자신의 어린 시절 그리고 남편 김기화(1772-1791)의 죽음을 맞기까지의 과정과 이후의 사정을, 남편을 떠나보낸 다음해(1792)에 기술한 글이다.[1]

조씨의 <자기록>이 쓰여진 당시 조선에서 남편을 잃은 여성들은 누구든 일단 죽음을 결심했으며, 풍양 조씨도 예외는 아니었다.[2] 하지만 그녀는 죽음 대신 삶을 선택하고 "철저한 기억의 재구를 통해 자신이 살아남기로 한 경위를 치밀히" 기록했다는 점에서 "조선후기 열녀전 서술의 이면을 보여준다"[3]고 주목받아 왔다.[4] 이와 같은 맥락에서 최근의 논의들

---

1) <자기록>은 1792년에 쓴 본문, 1805년에 쓴 짧은 발문, 남편이 죽은 뒤 친지들(고인의 외삼촌, 장인, 팔촌형, 육촌형, 육촌아우)이 쓴 제문 그리고 풍양 조씨의 언니가 쓴 필사기 등이 시차를 두고 몇 번의 편집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작품이다. 하지만 가장 중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분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본문이 1792년에 쓰였기 때문에 1792년의 기록으로 보았다.

2) 김경미, 『자기록』, 나의시간, 2014, 6쪽.

3) 위의 책, 276쪽.

4) <자기록>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 목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박옥주, 「풍양조씨의 『ᄌᆞ긔록』연구」,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3,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1, 307~318쪽, 박혜숙, 「여성적 정체성과 자기서사-『ᄌᆞ긔록』과 『규한록』의 경우」, 『고전문학연구』 20, 고전문학회, 2001, 239~272쪽, 조수미, 「<자기록>과 열녀전에 나타난 가족 행동 묘사와 그 의미」, 『민족문화논총』 61,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15, 269~293쪽, 김경미, 「기억으로 자기 역사를 새긴 보통 여성, 풍양조씨」, 『조선의 여성들』, 돌베개, 2004, 240~261쪽; 「『자기록』의 저자 풍양조씨 연구」,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8,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4, 141~142쪽, 홍인숙, 「『ᄌᆞ긔록』에 나타난 일상적 생애 서술의 특징과 효과」,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5,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2, 241~273쪽; 「<자기록>에 나타난 관계성 서술 방식의 의도와 효과」,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33,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6, 67~95쪽, 박경, 「『자긔록』을 통해 본 조선후기 열부관과 여성의 대응」, 『여성과 역사』 19, 한국여성사학회, 2013, 229~261쪽, 김정경, 「여성이라는 운명에 대한 자각과 글쓰기」, 『여성문학연구』 34, 한국여성문학회, 2014, 307~318쪽, 김보현, 「『자기록』, 삶과 죽음에 대한 반성적 글쓰기」, 『서강인문논총』 46, 서강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6, 267~296쪽. 이상의 연구들은 <자기록>을 "억압된 여성적 정체성을 보여주는 텍

은 <자기록>의 작자가 이 글을 쓴 궁극적인 의도, 즉 글쓰기를 통해 최종적으로 말하고자 했던 바가 무엇인가를 규명하는 데에 연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홍인숙은 <자기록>이 "말해서는 안되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5] 작품이라면서, 그것은 곧 "남편의 죽음에 대한 시어른들의 무책임함과 무능함과 어리석음이며,……그들로 인한 '불만과 분노와 원망'의 감정"[6]임을 주장했다. 그리하여 풍양 조씨의 글쓰기는 죽음의 원인과 책임이 억압적인 시어른들에 있음을 충실히 기억해 내는 행위라는 것이다.[7] 한편 김보현은 조씨가 "자신이 속한 사회의 규범을 의심하고, 그 의심을 말하고자 하는 욕망을 가졌다"[8]고 보고, 이 작품이 "모친과 남편의 죽음이 왜 마땅하지 않은지 기술함으로써, 이를 통해 자신의 죽음이 마땅하지 않음을 확인하고자 한다"[9]고 주장했다. 조씨의 글쓰기는 자신에게 죽음을 강요하는 세계의 모순을 확인하고 일상의 회복을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가치 체계를 구축하는 행위라는 것이다.[10]

이들의 논의는 구체적인 텍스트 분석을 통해 가부장 및 유교 사회의 규범에 대한 조씨의 반감과 의심의 목소리를 찾아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으며, 이 글에서도 이와 유사한 관점에서 <자기록>을 검토할 계획이다. 다만 이 글에서는 '글쓰기' 행위 자체의 수행적 의미[11]에 좀 더 천

스트"로 보는 입장과 "이념 지향적 성향과는 반대되는 지향을 드러내는 텍스트"로 보는 입장으로 분류해볼 수 있는데(김보현, 위의 글, 271쪽), 최근 논의들은 대체로 후자의 관점에서 진행된다.

5) 홍인숙, 「<자기록>에 나타난 관계성 서술 방식의 의도와 효과」, 71~72쪽.
6) 위의 글, 33쪽.
7) 위의 글, 33쪽.
8) 김보현, 앞의 글, 272쪽.
9) 위의 글, 292쪽.
10) 위의 글, 293쪽.
11) 수행성은 J. L.오스틴에 의해 전개된 개념으로 발화 그 자체가 행위임을 뜻하는 용어이다. 즉, 수행적인 발화는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 발화가 지시하는 행동을 이행하는 것을 가리킨다. 따라서 이 글에서 글쓰기의 수행적 의미를 탐구하겠다는 것은 텍스트가 무엇을 기록하는가의 문제보다는 텍스트를 기록하는 행위 그 자체

착하려 한다. 다시 말해서 무엇을 썼는가라는 문제와 함께 쓰는 행위의 의미를 탐구하겠다는 것이다.

우리 시대에 비해 이른 죽음이 그리 드문 일이 아니었다고 할지라도, 조선 후기 한글로 자기 삶의 기록을 남긴 여성들의 가장 두드러진 공통점 가운데 하나는 이들이 남편 혹은 자녀를 잃고 글을 썼다는 사실이다. <동명일기>의 의령 남씨(1727~1823)는 12남매를 출산하였지만 한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잃었으며,[12] <병자일기>의 남평 조씨(1574~1645) 역시 4남 1녀를 낳았지만 이들 모두는 일찍 세상을 떠났다. 풍양 조씨(1772~1815) 또한 어려서 어머니와 두 명의 남동생과 한 명의 여동생 그리고 스무 살에 동갑내기 남편 김기화와 사별했으며, <규한록>의 이씨 부인(1904~1863)은 나이 17세 되던 해에 결혼하여 같은 해 남편을 잃었고, <한중록>의 혜경궁 홍씨(1735~1815)도 열 살에 궁중으로 들어가 1762년에 남편 사도세자와 이별했다. 이들의 기록이 각기 다른 이야기를 담고 있다 하더라도, 이 여성들이 가까운 이의 죽음을 겪고 공통적으로 자기 삶의 기록을 남겼다면 그녀들의 글쓰기 행위에 어떠한 공통된 지점이 있으리라는 짐작을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바로 이러한 공통점을 찾아내고, 나아가 이것이 문화의 한 현상으로서 발전한 자아의 글쓰기[13]와 어떠한 관련을 갖는가라는 질문에 답해보려 한다.

2. 타고나는 자아와 만들어지는 자아

이 글에서는 <자기록>의 내용을 크게 '남편의 죽음'과 '조씨의 삶' 부

가 무엇을 의미하는가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뜻이다. 조너선 컬러, 『문학이론』, 이은경·임옥희 역, 동문선, 1999, 152~155쪽 참조.

12) 의령 남씨 족보에 의하면 의유당에게는 3명의 자식만이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있지만, 나머지 9명의 자식은 요절하여 족보에 오르지 못한 것 같다고 한다. 류준경, 「의유당관북유람일기 해제」, 『의유당관북유람일기』, 신구문화사, 2008, 32쪽.

13) 18세기 이후 발전한 자아의 글쓰기는 문화의 한 현상으로서 역사적 관점에서 연구될 수 있다. 필립 르죈, 『자서전의 규약』, 윤진 역, 문학과 지성사, 1998, 5쪽.

분으로 나누어 검토하고자 한다. 남편의 죽음까지의 과정을 이야기하는 부분에서는 주로 운명에 대한 태도를 중심으로 시가와 친가의 대립적 태도와 병렬적 서술 양상을 검토할 것이며, 조씨가 죽음이 아닌 삶을 선택하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부분에서는 삶의 의미에 대한 고민을 아들/딸, 남편/아내 등의 대립을 통해 살펴보려 한다. <자기록>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남편의 죽음' 부분이며, 가장 큰 고민 즉, 종사와 투생의 갈등이 두드러지는 부분은 남편의 죽음 이후이다. 하지만 '남편의 죽음'과 '조씨의 삶'은 텍스트의 어느 지점을 기준으로 명확하게 나뉜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조씨의 삶'은 텍스트 전체에 걸친 조씨의 고민과 갈등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 <자기록>을 '남편의 죽음'과 '조씨의 삶'으로 나눈 것은 텍스트의 일정한 부분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텍스트를 관통하는 두 개의 중심축을 구분한 것이며 따라서 같은 부분이 양쪽 모두에 해당될 수도 있다고 하겠다.

서문에 해당되는 글의 앞부분에는 이 글의 핵심적인 갈등이 대부분 제시되는데, 그 가운데 이 장에서는 운명에 대한 인식과 태도의 차이에 관해 논하고자 한다. 조씨는 어머니의 죽음과 아버지의 삶 그리고 남편의 죽음에 대해 서술하면서 인간의 행위가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것인지, 운명에 대해 인간이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하는 것인지를 묻는다.

조씨는 "텬도의 지공무사홈 인니의 복션화음은 ᄌᆞ고의 샹니"[14]일 텐데, 인과 덕을 갖춘 아버지와 돌아가신 어머니가 "놉흔 슈와 너른 복"[15]을 누리지 못한 것을 보면 "하ᄂᆞᆯ이 능히 ᄉᆞᆯ피미 잇다 ᄒᆞ며 현으로써 복을 우흔다 ᄒᆞ랴"[16]고 탄식하며 <자기록>을 시작한다.[17] 훌륭한 성품을 지녔음에

14) 풍양 조씨, 『자기록』, 김경미 역주, 나의 시간, 2014, 145쪽. (이후 『자기록』은 쪽만 표시한다.)
15) 145쪽.
16) 145쪽.
17) 남편을 먼저 보낸 여성들이 자신의 운명을 탓하고 하늘을 원망하는 것은 상투어구처럼 혼자 남은 여성들의 유서 등에서 자주 나타난다. <자기록>에 쓰인 하늘에 대한 원망 또한 그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다만 이 글에서는 하늘의 이

도 복을 누리지 못한 부모님의 삶을 보고 순리대로 돌아가지 않는 세상에 의문과 갈등을 표하는 것이다.[18] 이어서는 조씨의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언니와의 관계 대해 기록하는데, 아버지에 관한 부분에서는 지극한 효심과 인자함 등의 내용을 주로 서술하기에 특별한 갈등을 찾기 어렵다. 오히려 이 부분은 아버지의 "셩심인덕이 시쇽의 과인ᄒᆞ신지라"[19] 하늘이 도와 그토록 바라던 귀한 아들을 내려주었다는 내용으로 마무리되어[20] 앞선 천도 혹은 상리에 대한 회의나 의문과는 반대되는 인식을 읽을 수 있다. 조씨는 아버지의 선한 품성이 곧 하늘의 이치와 맞닿아 있어 하늘이 아버지에게 귀한 아들을 보내주었다고 믿는 것이다. 하지만 이어지는 어머니에 관한 부분에서는 다시 하늘의 뜻을 알지 못하겠다는 회의가 강하게 표현된다. 이 부분은 규중의 사군자와 같은 어머니가 어찌 "향슈다복을 다 못ᄒᆞ시"[21]게 되었는지, 그 "텬의"[22]를 궁금해 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계속해서 어머니와 아버지의 "인현셩심"[23]을 보여주는 일화들을 제시하고, 이러한 성품이 세상에 흔치 않은 것임에도 "노텬이 무지ᄒᆞ야 갑흐미 업고 인니도 상ᄒᆞ여 션악의 슈복이 밧고이니"[24] 하늘의 뜻을 모르겠다 탄식하는 것으로 끝난다. 어머니 다음으로는 언니와의 지극한 형제애를 서술하는데 이 부분에서는 천도에 대한 믿음과 회의를 모두 찾아볼 수 있다. 가령 어머니의 덕이 가족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언니의 말을 옮기는 데에서는 언니의 이 같은 생각에 대해서 회의적인

치가 실현되는 데 대한 회의나 원망이 이후 운명에 대한 조씨의 양가적인 감정 혹은 태도와 연결되기에 유의미한 부분으로 다루었다.

18) 이러한 갈등은 이후로도 반복적으로 제시되는데 "인니의 복션명응은 고금의 덧〃ᄒᆞᆫ 니"인데, 어머니의 "현심슉덕과 관유통쳘ᄒᆞ신 셩심으로써 슈복의 단박ᄒᆞ심과 신후의 ᄆᆡ몰"됨이 한스럽게 느껴진다는 등의 내용이다.

19) 154쪽.

20) "텬우신조ᄒᆞ샤 신셕의 우탄ᄒᆞ시며 오ᄆᆡ의 현망ᄒᆞ시던 소원을 일우샤 하ᄂᆞᆯ이 쳔니긔린으로써 오가의 ᄂᆞ리오시니", 154쪽.

21) 155쪽.

22) 155쪽.

23) 159쪽.

24) 159쪽.

태도를 보이면서도 음덕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며 언니의 믿음을 전혀 근거 없는 것으로 여기지 않는 조씨의 태도가 그러하다.[25]

이상의 내용은 하늘의 도와 인간의 도가 마땅히 연결되어 있다는 믿음, 선하게 살면 복을 받는다는 세상의 이치를 여러 차례의 불행을 겪은 뒤 더 이상 믿을 수 없게 되었음을 토로하는 것이라 요약할 수 있다. 조씨가 지금까지 믿고 있었던 원리, 세상이 마땅히 그러하고 그러해야만 한다고 배웠던 이치와 조씨가 실제로 경험한 일들의 괴리는 계속해서 눈앞에 벌어지는 비극적인 현실을 납득할 수 없게 만든다. 그리하여 하늘의 이치가 인간의 삶에 더이상 미치지 않는가라는 조씨의 회의와 갈등은 남편의 와병으로 더욱 심화되고, 운명 앞에 인간이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하는가에 대한 고민으로 구체화된다.

이는 작품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남편의 와병 부분이 친정의 적극적인 태도와 시가의 소극적인 태도로 나뉘어 병렬적으로 기술되는 것에서 잘 드러난다. 물론 지금까지의 연구에서 밝혀진 것처럼 시댁 어른들의 무책임하고 무능한 태도가 남편의 이른 죽음을 가져왔다고 보는 조씨의 입장이 문면에 명백하게 기술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조씨는 "대개 무신 동 위질 후 보원지졔와 익긔지뉴를 써 완구히 소복ᄒᆞ고 득질시초의 병근이 깁지 아냐셔 의약을 다ᄉᆞ리며 긔운이 진패치 아냐셔 보원을 ᄒᆞ여실진대 혹 이 지경의 니ᄅᆞ지 아닐 줄 엇디 알니오"[26]라며 초기에 조금 더 의약과 보양에 힘썼다면 이 지경에 이르지는 않았을지 모른다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작품을 검토해보면 친정아버지가 뜻한 대로 했다고 하여 남편의 이른 죽음을 막을 수 있었는가라는 질문에 긍정적인 대답을 하기 어렵다. 조씨의 아버지는 사위 김기화의 병을 치료하기

25) "ᄇᆡᆨ시 ᄯᅩᄒᆞᆫ ᄒᆞ시ᄃᆡ 텬되 복션화음이 비록 명〃치 아니나 현마 우리 ᄌᆞ당 현심덕덕으로 슈복이 하원치 못ᄒᆞ시나 음이 반ᄃᆞ시 우리게 흐를 거시오 현뎨ᄂᆞᆫ 당〃이 복녹지상이니 ᄂᆡ두 유챵은 불견가지니라 대 답ᄒᆞᄃᆡ ᄌᆞ당 심덕으로 니ᄅᆞ면 음이 필유지어니와 말셰 노텬의 텬니를 알기 어렵고 작인을 더욱 엇디 알니오 이러ᄐᆞᆺ 문답ᄒᆞ여 평싱을 미가복ᄒᆞ니 텬도와 인니 엇더ᄒᆞᆯ고", 177~178쪽.

26) 234쪽.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였지만, 결과는 대부분 부정적이었기 때문이다.

<표1. 남편의 병세와 치료 내용>

연/월	행위·상태의 주체	남편의 병세와 치료 내용
1790 음력선달무렵	남편	처가에서 온 것을 물리치고 음식으로 몸 보양하기를 그침 그믐께와 새해 초 즈음에 몸의 기운은 잠깐 나아지는 듯함
1791 1월 15일	남편	처가에서 보내준 약은 기꺼이 먹음 15일에 약밥을 먹고 체한 것인지 병세가 더 안 좋아짐
2월 4일~5일	친정아버지	친정아버지가 와서 보고 크게 놀라며 시아버지께 남편을 데려가 의원에게 보일 것을 허락받음 친정에서 의원 뉴싱에게 보이고 7일부터 가감건니탕을 씀
2월 12일	친정	12일 의원 뎡싱이 쇼젹니긔환이란 약명을 내놓아 김익신과 함께 의논하게 한 뒤 처방
	남편	병세 더욱 나빠져 다시 약을 쓰지 못함
~3월 8일	친정	팔미탕을 씀
	남편	특별한 효험이 없고, 기침으로 잠을 자지 못함
	친정	팔미탕에 맥문동이라는 약재 첨가
	남편	병세악화
3월 10일	친정	의술이 밝다는 신가 의원 청함
	친정	신의원이 반총산 열 첩이면 회복될 것이라 말함
3월 11일	남편	팔미탕 끊고 반총산 썼으나 기운이 더욱 나빠짐
	시어른	증세가 더해져 시할아버지도 낮에 왕래하고, 할머니도 13일에 머무는 곳으로 오심
2월 그믐무렵	남편	병중 횟수 잦고, 뒤 본 것에 윤기, 백리가 섞여 나옴 초순까지는 그다지 설사하지 않았으나 반총산 먹은 뒤 횟수 잦아지고 적백의 설사를 봄 나쁜 증세가 점점 심해짐
3월 15일	친정아버지	이태만이란 의원을 청해옴 됴듕익기탕으로 구할 수 있다 말함
	남편	기운과 상태 더 나빠짐
	친정아버지	됴듕익기탕 버리고 박가 의원 구함 보듕익긔탕을 쓰라하여 따름

	남편	아무 효과가 없음 오히려 갑자기 손이 부음. 20일 새벽에는 혼침.
3월 22일	친정아버지	벼슬. 의약에 관해 의논했으나 시어른들 정신이 없어서 편안히 의논 못함 이숙대인으로 하여금 의원을 청하게 하여 약으로 치료
3월 22일	남편	병세 더욱 악화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남편의 상태는 새로운 의원에게 보일수록, 다른 처방을 적용할수록 나빠졌다. 친정아버지는 남편을 위해 의술이 뛰어나다는 의원을 데려오고, 온갖 약을 지어 먹인다. 파루가 울리기도 전에 말을 타고 가서 의원을 만나고, 의원마다 다르게 내놓는 여러 처방을 언제나 지체 없이 따르고 준비한다. 하지만 친정아버지가 데려온 의원이 내놓은 처방은 남편의 병세를 악화시킬 뿐이었다. 비단 의원의 처방뿐만이 아니라 친정으로의 피접도 남편에게 해가 된 것만 같다. 남편은 피접 초기에는 잠깐 병세가 호전되는 듯했으나 이내 더 이상 약을 쓰지 못할 정도로 상태가 나빠졌으며 줄곧 집으로 돌아가기를 원했다. 아버지는 의원을 믿고 따르며 남편에게 여러 종류의 약을 먹였고, 또 한편으로는 명복이 가리키는 대로 남편의 요양을 강하게 주장했다. 아버지는 남편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찾았으며, 그 일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러나 매번 바뀌는 의원과 처방 그리고 명복의 지시는 정해진 운명을 바꾸지 못했다. 조씨는 남편의 병을 초기에 다스렸으면 고칠 수 있었을 것이라 서술하고 있지만 남편의 원기를 보호하는 행동들이 초기에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고, 남편의 병세를 악화시키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반드시 시어른들이라고만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친정아버지의 행위에 대한 평가가 없음에도 그것이 부정적인 결과와 함께 서술된 것은 이를 남편의 상태를 악화시킨 원인으로 생각할 여지를 남긴다.

그러므로 시어른들과 친정아버지의 행위는 남편의 병이 완쾌될 가능성을 믿고 신념에 따라 행동했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었다고 보아야 할 것

이다. 다만 시어른들이 “운명을 절대적인 것으로 여기고 지극히 수동적인 태도”[27]로 일관했다면, 친정아버지는 최선을 다해 운명을 바꾸고자 노력했다는 점이 달랐을 뿐이다. 친정아버지는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운명을 개척할 수 있다고 믿었고, 시어른들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인간의 행위를 신뢰하지 않았다. 시어른들은 자신들의 삶을 돌이켜볼 때 집안에 비극적인 일이 일어날 리 없다며, 모든 것이 바르게 돌아가기를 기도하고 기다렸다.[28] 친정아버지는 최선을 다해 노력하면 정해진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믿고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움직였다. 그러나 남편은 결국 세상을 떠났고, 이는 조씨가 운명에 대한 이 같은 태도 가운데 어느 한쪽에도 동의할 수 없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요컨대 남편의 치료에 대한 시가와 친가의 대조적인 대응은 운명에 대한 상반되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으로 읽을 수 있으며, 표면적으로 시가에 대한 부정적인 언급이 두드러지는 것과는 다르게, 텍스트는 운명에 순응하는 삶과 운명을 개척하는 삶 가운데 어느 것이 옳다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남편의 죽음까지를 서술하는 부분에서 드러나는 것은 인간 행위에 대한 정반대의 태도 사이에서 갈등하는 조씨의 모습이다.[29] 조씨는 남편의 치료 과정을 기록하면서 운명을 믿고 의지하

---

27) 김정경, 「여성이라는 운명에 대한 자각과 글쓰기: 『자기록』을 중심으로」, 『조선후기여성한글산문연구』, 서강대학교출판부, 2016, 321쪽.

28) “우리 존고의 지인현심과 관유셩덕으로 엄ᄒᆞᆫ 벌이 비ᄇᆡ의 밋디 아니코 살ᄉᆡᆼ지심이 초튱의도 업ᄉᆞ샤 관유후덕ᄒᆞ시며 인ᄌᆞ유화ᄒᆞ신 현심으로써 텬하의 궁독ᄒᆞᆫ믈 당케 ᄒᆞ시니 텬되 셩심인현을 갑흐미 어ᄃᆡ 잇ᄂᆞ뇨” 236쪽.

29) 남편의 와병 이전에도 이와 유사한 갈등을 찾아볼 수 있는데, 가령 조씨의 안색과 취미에 대한 남편과의 대화가 그러하다. 남편은 평소 조씨가 어머니를 잃은 같은 처지인 언니에 비해서도 얼굴이 어둡고, 글을 보거나 바늘꽂이 만들기를 즐기는 것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것들이 팔자에 해롭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남편의 질책에 조씨는 자신은 돌아가신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억제하기 어려우며, 사람의 팔자 또한 “ᄉᆡᆼ지지초의 텬뎡ᄒᆞᆫ”(188쪽) 것이라며 태도를 바꾸지 않았다. 당시 조씨는 인간의 운명이 이미 정해져 개인의 행동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여겼던 것이다. 그러나 조씨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이 일화를 서술하면서 “엇디 스ᄉᆞ로 ᄆᆞᄋᆞᆷ이 동ᄒᆞ여 이러ᄐᆞᆺ 마잣ᄂᆞ뇨”(188쪽)라며, 자신의 행동이 불행한 운명과 무관하지 않았음을 뒤늦게 깨닫는다. 남편의 죽음으로 인해 조씨는 인간의

는 삶도, 의지와 노력으로 운명을 개척하는 삶도 결국 불행한 결과를 가져온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묻고 있는 것이다.

3. 사회적 쓸모와 사적인 친밀감

<자기록>에는 인간의 행위 대한 조씨의 의문과 갈등 외에 여성의 삶에 대한 신념과 회의가 중요하게 다뤄지는데, 텍스트에서 남성/여성의 대립은 아들/딸 그리고 남편/아내의 대립으로 구체화된다. 아들/딸의 대립 가운데 먼저 눈에 띄는 것은 필요 없는 딸로 태어난 자신과 언니는 살아있고 가문의 희망이던 아들들은 세상을 떠났다는 데에서 비롯한 슬픔을 토로한 부분이다. 조씨는 을미년 돌림병에 "우리 형뎨 무ᄉᆞ히 지내고 소듕이 불힝"[30]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딸들은 무사하고 소중한 아들이 목숨을 잃어 불행하다는 것이다. 다행히 정유년에 아들이 태어나 조씨 평생에 "ᄎᆞ싱의 다시 엇기 어려온 즐거온 셰샹"[31] 수삼년을 보낼 수 있었지만 이내 홍역으로 이 동생마저 세상을 떠나고 조씨는 아버지의 지극하신 성심과 어머니의 현심을 "이리 갑흐미 업ᄂᆞ뇨"[32]라며 하늘을 원망한다. 조씨의 삶에 있어서 행복과 불행을 좌우하는 가장 큰 요인은 집안에 아들이 존재하는가 부재하는가였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뒤에는 아버지가 언니와 조씨의 관상을 보게 하면서 두 자매가 모두 남아의 상으로 태어났으나 여자라 쓸모없음을 탄하였다는 내용이 나오기도 한다.[33] 아들/딸의 대립은 이후로도 계속해서 나타난다. 조씨는 모녀간 이별의 순간, "만일 우리 형뎨 남일진대 슈상 죵혈의 ᄌᆞ식의 도를 펼거시로ᄃᆡ"[34] 쓸모없는 여자라서 집에서 영결을 짓는다고 탄

운명과 행동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된 것이다.

30) 161쪽.

31) 162쪽.

32) 162쪽.

33) "우리 형뎨 다 남ᄋᆞ의 격으로 품쉬 용쇽지 아니ᄃᆡ 무용이믈 차탄 통개ᄒᆞ시며", 177쪽.

식한다.[35] 정리하면 <자기록> 전반부에서 남성과 여성의 대립은 아들과 딸의 대립으로 구체화되고 이 둘을 구분하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딸의 '쓸모없음'으로 표현된다.

이어 남성/여성 대립의 또 다른 양상인 남편/아내의 대립은 먼저 친정아버지와 친정어머니 사이를 묘사하는 데에서 찾아볼 수 있다. 두 아들을 잃고, 마지막 희망이던 막내가 딸이라는 사실을 알고 난 어머니는 기력을 회복하지 못한다. 어머니는 병석에서도 자신이 떠난 후의 여러 일들을 가족들에게 세세하게 일러주는데 특히 아버지에게 재혼을 권하는 장면과 이후 그와 관련된 서술들에서 남편/아내의 대립이 확연하게 나타난다.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자신은 더 이상 혼인을 하지 않겠다는 말을 하고, 이 말을 들은 어머니는 아버지를 설득하며 반드시 새 아내를 얻어 집안을 돌보게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36] 이 부분에서 조씨는 여기까지 오간 대화만을 기록하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지만, 뒷부분에서 아버지의 새 혼인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한다. 아버지가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바로 그 해에 다시 혼인을 했다는 것이다.[37] 물론 아버지의 혼인을 언급하는 부

34) 171쪽.

35) 또한 이러한 인식은 여동생이 세상을 떠날 때에도 읽을 수 있다. "그히 디월의 홀연 독질을 어더 십여 일만의 저를 죵시 구치 못ᄒᆞ니 제 비록 무용ᄒᆞᆫ 거시나 …… 집안이 다 혹ᄋᆡ하더니 홀연 일흐니 ᄋᆡ지〃〃라."(172쪽) 막내 동생은 비록 쓸모없는 딸로 태어났으나 집안의 사랑을 독차지했는데, 이제 그마저 떠나 슬프다는 내용이다.

36) "내 임의 쳐궁이 박ᄒᆞ여 두 번 이 졍경을 당ᄒᆞ고 나히 또 ᄉᆞ십이니 다시 취쳐를 말고져 ᄒᆞ노라 ᄌᆞ당이 뎡ᄉᆡᆨᄒᆞ여 답ᄒᆞ시ᄃᆡ 엇디 이런 통치 못ᄒᆞᆫ 말ᄉᆞᆷ을 ᄒᆞ시ᄂᆞ니잇가 그런 형세ᄂᆞᆫ 또 잇ᄂᆞ니 우흐로 존당이 계시니 감지를 밧들 니 업고 군이 년댱ᄉᆞ슌의 신후를 탁ᄒᆞᆯ 아들이 업고 미혼ᄒᆞᆫ 양네 잇고 건긔를 밧들며 듕궤를 당ᄒᆞ 리 업ᄉᆞ니 맛당이 급히 취ᄒᆞ실 터히어ᄂᆞᆯ 엇디 그릇 혜아리시믈 이ᄀᆞ치 ᄒᆞ리잇고 부군이 더욱 감창탄복ᄒᆞ샤 의논이 명달ᄒᆞ믈 일ᄏᆞᄅᆞ시고 우왈 그리면 간찰ᄒᆞᆫ 쳡을 두나 봉친 가ᄉᆞ의 해롭지 아니코 ᄉᆞ속을 두나 소듕이 아니오 신후쓴이니 엇더ᄒᆞ뇨 ᄌᆞ당이 또 말니샤 왈 쳔인은 죵시 간음ᄒᆞ기 쉬오니 맛당이 신취ᄒᆞᆯ ᄒᆞ쇼셔 ᄒᆞ여 다시옴 권ᄒᆞ시고", 166쪽.

37) "이러ᄐᆞᆺ 부군이 상쳑우괴 년면ᄒᆞ니 셰ᄉᆡ 무황ᄒᆞ시고 또 초긔도 지나디 못ᄒᆞ여 신취심히 급ᄒᆞ시나 왕뫼 년녕이 최고ᄒᆞ시고 듕궤 븨엿ᄂᆞᆫ디라 시러곰 마지 못ᄒᆞ여 널니 구혼ᄒᆞ여 납월의 모친이 닙승ᄒᆞ시니 가되 여젼ᄒᆞ여 뷘 곳이 며이고 니즈러진 곳이

분에서 조씨는 별다른 감정을 표하지 않는다. 새어머니가 들어오고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갔다는 것만을 이야기할 뿐 아버지에 대한 원망도 새어머니와의 관계를 짐작할 수 있는 어떠한 서술도 없다.[38]

그런데 아버지의 재가에 대한 언급이 이후에 다시 나오지는 않지만, 재가와 관계되는 이야기가 두 번 더 반복되는 것이 특징적이다. 첫 번째는 조씨가 남편과의 대화를 옮기면서 자신이 먼저 세상을 떠날 경우 새로이 혼인을 할 것 아니냐는 질문을 하는 부분이다. 남편은 자신이 남자이기에 어쩔 수 없는 일이라 답하고 조씨는 그에 대해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39] 두 번째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아들을 따라 함께 목숨을 끊으려는 시어머니를 조씨가 설득하는 부분에서다. 조씨는 시어머니에게 당신이 세상을 떠난 후에 존당은 반드시 혼인을 새로 할 것이며 그렇게 되면 세상 의지할 곳 없는 자신은 어찌되겠느냐며 살아주기를 청한다.[40]

완젼ᄒᆞ니 물싁이 의구ᄒᆞ고 히 오히려 변치 아니시ᄃᆡ 홀노 ᄌᆞ당이신 ᄌᆡ 밧고이시고 인ᄉᆡ 환역ᄒᆞ여 ᄌᆞ당 음용과 자최ᄂᆞᆫ 쳔고의 졀원ᄒᆞ시니 오호 통ᄌᆡ라” 172~173.

38) 글쓴이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해이자 새어머니가 온 1782년부터 1786년 겨울, 글쓴이가 혼인할 때까지 4년간 새어머니와 함께 지냈으나 그와 관련된 이야기는 전혀 언급이 없으며, 남편과의 대화에서 장모가 없어 딱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새어머니와 그리 친밀한 관계는 아니었던 것 같다.

39) “내 답왈 부ᄌᆡ 비록 곡진ᄒᆞ나 녀ᄌᆞ의 소텬所天 앙망ᄒᆞ여 듕히 넉임갓ᄒᆞ리잇가 셰샹의 무심ᄒᆞᆫ 거슨 사나히라 안해 사라셔ᄂᆞᆫ 관곡ᄒᆞ미 ᄃᆡ치 ᄒᆞᆫ가지나 불힝ᄒᆞ여 상쳐ᄒᆞᆫ 후ᄂᆞᆫ 호신기고ᄒᆞ여 벳사ᄅᆞᆷ 니저ᄇᆞ리기를 듯글긋티 ᄒᆞᄂᆞ니 군이 비록 시방 위곡ᄒᆞ나 혹 그런 일을 당ᄒᆞᆫᄌᆞ 엇디 홀노 그러치 아니리오 능히 슈의ᄒᆞ여 유신ᄒᆞ리잇가 부ᄌᆡ 답쇼왈 이는 ᄉᆞ체의 마지 못ᄒᆞ미오 사나히 슈졀이 업고 소듕으로 무ᄌᆞᄒᆞ면 더옥 부득이 폐치 못ᄒᆞᆯ 배어니와 그러나 됴흔 말을 ᄒᆞ리니 어이 이런 붓치 말을 ᄒᆞᄂᆞ뇨”183~184쪽.

40) “존괴 말ᄉᆞᆷ 끗히 혹 불길ᄒᆞᆫ 언단을 ᄌᆞ로 ᄒᆞ시기 내 일〃은 톄읍ᄒᆞ여 ᄀᆞᆯᄋᆞᄃᆡ 아히 완명이 투싱ᄒᆞ여 셰샹의 머므나 텬디간 극통을 품어 다만 의앙ᄒᆞᄂᆞᆫ 배 존당이오 위회ᄒᆞᄂᆞᆫ 배 ᄉᆞ친이어ᄂᆞᆯ 구가로 혤진대 열위 존당이 비록 무휼년ᄌᆞᄒᆞ시미 디극ᄒᆞ시나 ᄌᆞ별이 의지ᄒᆞ미 존고씌 잇숩거ᄂᆞᆯ 존괴 ᄆᆞ양 여ᄎᆞ 불길지언을 ᄒᆞ시니 존괴 만일 아히ᄅᆞᆯ ᄇᆞ리실진대 아히 쳡〃ᄒᆞᆫ 디통이 살 길 업고 ᄯᅩ 기리 싱각건대 존구 대인은 츈취 오히려 쇠경이 아니시고 ᄉᆞ쇽이 업ᄉᆞ시니 반ᄃᆞ시 신취ᄒᆞᆯ ᄒᆞ실지라 인ᄉᆡ 이에 변역ᄒᆞᆫᄌᆞ 아히ᄂᆞᆫ 고혈무의ᄒᆞᆫ 셜움과 얼울ᄒᆞᆫ 신셰 텬지ᄅᆞᆯ 부앙ᄒᆞ여 할 곳이 업술지라 존괴 엇지 이ᄅᆞᆯ 싱각지 아니시며 아히 여싱을 고렴치 아니시ᄂᆞ니잇가”, 236~237쪽.

그러자 그전까지 마음을 바꾸지 않았던 시어머니는 조씨의 이 같은 설득에 살기로 결심한다. 앞서 말했듯 조씨는 아버지의 이른 재혼에 대해 아무런 감정도 표현하지 않는다. 하지만 아버지와 남편 그리고 시아버지의 재혼에 관한 언급을 통해 우리는 배우자를 잃은 후 남은 이에게 요구되는 바가 남성과 여성에게 각기 다르다는 것을, 다시 말해서 남성과 여성의 비대칭적인 관계를 그녀가 뚜렷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자기록>에서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이 같은 관점에서만 서술하고 있지는 않다. 텍스트 곳곳에서 우리는 조씨를 비롯한 여러 인물들이 남편과 아내를 대등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조씨의 남편은 아내에게 자신이 잘못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이를 바로잡아줄 것을 부탁하고, 이에 대해 조씨는 "무식ᄒᆞ고 암미ᄒᆞᆫ 녀ᄌᆞ의 소견이 어디 남ᄌᆞ의 지난 슬긔 이셔 부ᄌᆞ를 훈슈ᄒᆞ리잇가"[41]라며 순종적인 태도를 보이다가도, 과거 공부를 위해 동접을 가겠다는 남편의 결심에 회의를 표하거나, 세상 무심한 것이 사내라며 본심을 감추지 않는다. 시어머니 역시 "우리는 평싱 안과 밧기 규뫼 어긋나 나의 ᄒᆞᆫᄒᆞᄂᆞᆫ 배 너히ᄂᆞᆫ 지리샹합ᄒᆞ여 가도를 슉졍ᄒᆞ고 복녹을 유챵ᄒᆞ여 나의 평싱 밋친 ᄒᆞᆫ을 풀고 만ᄂᆡ 즐거오믈 도으라"라고 말하며, 부부관계를 수직적인 관계 보다는 대등하여 서로 합치하거나 어긋날 수 있는 관계로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자기록>에서 남편과 아내는 수직적 위계관계로 여겨지는 한편으로 수평적인 상호관계로 이해되기도 한다. 결혼 전 딸로서 쓸모없음을 한탄하던 조씨는 결혼 후 인자한 시가에서 남편과 대등한 관계를 맺는다. 하지만 남편의 이른 죽음은 조씨에게 '종사'를 강요하고, 남편/아내의 대립은 '종사'와 '투생'의 갈등으로 이어진다.

조씨는 남편의 회복이 어려워질 것을 예감하자 세상을 버리겠다고 결심[42]하는데, 이 부분에서 주목할 것은 동생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쪽이

41) 183쪽.

42) "스ᄉᆞ로 혜아리건대 ᄎᆞ마 싱각지 못ᄒᆞᆯ 째를 당ᄒᆞ면 맛당이 ᄒᆞᆫ 번 급히 결ᄒᆞ여 시긱을 지완치 아니코 조출 ᄯᅳ름이라 다른 쳐변과 싱각이 엇디 이시리오 스ᄉᆞ로 굿

언니와 시어머니, 즉 여성이라는 점이다. 조씨는 혼자 남을 언니를 걱정하며 종사할 뜻을 언니에게 미리 밝히고,[43] 이때 언니는 동생더러 차마 살라고 하지 못하는 상황에 서러움을 표한다. 이전 내용에서 남성과 여성의 대립이 남편과 아내의 대립으로 구체화되고, 아내가 떠난 후라도 남편인 자신은 남자이기 때문에 수절을 할 수 없다는 등의 말로 미루어 남편/아내의 대립을 유교적 질서 혹은 규범의 유지(종사)와 위반(투생)의 대립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오히려 유교적 질서를 따르려는 이들은 조씨와 그의 언니, 그리고 시어머니와 같은 여성이고 이를 위반하며 투생을 주장하는 이들은 친정아버지, 시아버지와 같은 남성이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종사하겠다는 조씨를 친정언니는 이해하고 말리지 않는다. 시어머니 역시 조씨를 따라 죽겠다고 할 뿐 종사하려는 그녀의 뜻을 꺾으려하지 않는다. 하지만 남편, 아버지와 큰아버지, 시아버지, 시할아버지 등의 남성들은 조씨와 시어머니의 죽음을 적극적으로 말린다.

남편은 조씨가 팔목을 찌르려 한 것을 자결하려는 것으로 오해하고 희미한 정신에도 이를 용납하지 않았으며[44], 큰아버지는 시부모를 받들며 남편의 후사를 이어 집을 보존하는 것이 남편을 위하는 일이라 설득한다.[45] 시할아버지, 친척들과 시숙들 또한 시어머니에게 부모님을 받들고 대를 보전하여 제사를 받들고 후사를 세우는 것이 도리라며 아들을 따라 목숨을 끊으려는 시어머니를 수만 번 회유한다. 그리하여 남편이 떠난 후 남편의 죽음을 따르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 생각하고 그리 행동하고자 했던 조씨는 결국 투생을 결심한다. “존당을 긔탁홀 데ᄉᆡ 업고 ᄉᆞ정으로 우리 엄뎡의 지ᄌᆞ 텬뉴으로써 불효를 더으디 못ᄒᆞ고 ᄇᆡᆨ시 늑아디통 가온대

게 뎡ᄒᆞ고”, 214쪽.

43) “간〃이 동결홀 ᄯᅳᆺ을 고ᄒᆞ니 ᄇᆡᆨ시 내 ᄂᆞᆺ출 다히고 목을 안아 앙텬 통흉 왈 ᄎᆞ하진여아 몽여아 창텬이 ᄎᆞ마 이를 홀 것가 ᄎᆞ마 이 셰상을 당ᄒᆞ여 내 ᄎᆞ마 엇디 현뎨 ᄃᆞ려 살나 ᄒᆞ리오 다만 현뎨의 ᄯᅳᆺ만 ᄇᆞ르ᄂᆞ니 위질 진명은 홀 일이 업거니와 ᄉᆡᆼ목숨을 ᄭᅳᆺᄂᆞᆫ 이 지원졀텬 혹독ᄒᆞᆫ 셜움을 내 ᄎᆞᄆᆞ 엇디 견ᄃᆡ고 살니오”, 215쪽.

44) 224쪽.

45) 225쪽.

서로 위회ᄒᆞ야 심담이 샹됴ᄒᆞᆫ 재 다맛 나 일인이라" 종사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남성/여성의 대립이 아들/딸의 대립으로 나타나고 그때 딸의 자질을 특징짓는 것이 '쓸모없음'이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이 부분에서 남성들이 조씨와 그의 시어머니를 설득하는 가장 큰 이유가 쓸모라는 점이 흥미롭다. 이 세계에서 쓸모없는 존재였던 이들이 갑자기 시어른을 모시고 후사를 이을 막중한 쓸모의 존재로 인식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녀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책임과 의무로서의 삶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때 텍스트에 기술되는 그녀들의 실제 삶은 사적인 친밀함이라는 새로운 영역에서 펼쳐진다.

남편이 죽기 전까지 <자기록>에서 사적인 친밀함의 공간은 대체로 '친가'와 관련하여 서술되었다. 텍스트의 앞부분에서 조씨는 친가에서 "빅시"와 함께했던 애틋한 기억들을 떠올리며 지극한 자매애를 서술한다.[46] 여기에는 언니와 마치 한 몸처럼 생활했던 일, 언니가 시집을 간 후에도 친정에서 함께 생활할 수 있어 좋았던 일[47] 등이 포함된다. 이후 조씨가 시집을 가서 처음 시어머니를 대했을 때에는 시어머니가 베푸는 지극한 사랑이 돌아가신 친모를 떠오르게 하여 더욱 슬퍼지는 것을 참을 수 없었다는 내용이 나온다.[48] 시어머니의 따뜻한 마음에 감사하지만 친정어

46) "실노 우리 형뎨는 놈다른 졍니라 ᄌᆞ당을 여희올 ᄯᅢ 빅시는 십뉵이오 나는 십일이니 나는 빅시를 의지ᄒᆞ고 빅시는 날을 무이ᄒᆞ야 ᄌᆞ당 견ᄇᆡ 시로붓허 벼개와 니블을 ᄒᆞᆫ가지로 ᄒᆞ며 슈유를 불니ᄒᆞ야 안ᄌᆞ매 무릅흘 년ᄒᆞ고 힝ᄒᆞ매 그림재 합ᄒᆞ니 내 잠간 업ᄉᆞ면 빅시 좌를 뎡치 못ᄒᆞ고 빅시 잠간 ᄯᅥ나면 내 의지 업ᄉᆞ니 쥬야의 긔거좌왜 ᄒᆞᆫ 몸 ᄀᆞᆺ고 음식을 당ᄒᆞ매 상을 ᄒᆞᆫ가지로 ᄒᆞ고 ᄒᆞᆫ 그ᄅᆞ식 두 술흘 ᄭᅩ자 ᄒᆞ나히 업ᄉᆞ매 ᄒᆞ나히 능히 먹지 못ᄒᆞ며 죠흔 것과 아롬다온 거술 반ᄃᆞ시 서로 ᄉᆞ양ᄒᆞ고 서로 권ᄒᆞ여 피ᄎᆞ의 권〃ᄒᆞᆫ ᄉᆞ랑과 디극ᄒᆞᆫ 졍이 각〃 몸 우희 이시니 ᄌᆞ모의 졍과 동긔의 친을 겸ᄒᆞ야 서로 위회ᄒᆞ고 보호ᄒᆞ야 일월을 보내나", 175쪽.

47) "결복 후 갑진 츄의 빅시 결가ᄒᆞ시니 구개 혹문지가로 가졍이 슌후ᄒᆞ고 인품이 관인ᄒᆞ며 김슝이 현명단ᄉᆡ니 계활이 안한ᄒᆞ시믈 긔필ᄒᆞᆯ지라 엇디 다힝치 아니리오마는……빅시 신혼을 인ᄒᆞ여 구가 왕ᄂᆡ를 ᄌᆞ로 ᄒᆞ시니 홀연이 몸이 의지 업ᄂᆞᆫ ᄃᆞᆺ 침식을 당ᄒᆞ여 흐ᄅᆞᄂᆞᆫ 눈물ᄲᅮᆫ이오 더욱 지박ᄒᆞ야 견ᄃᆡ기 어려오ᄃᆡ 힝혀 빅시 졔 삼부의 한가ᄒᆞ믈 어더 불과 수삼일식 뉴ᄒᆞ여 오시니 그런 만힝이 어ᄃᆡ 이시리오", 176쪽.

머니를 떠올리게 하는 것이기에 슬픔을 참기 힘들다는 것이다. 시어머니가 아무리 자신을 자식처럼 대한다 하여도 친가의 그것만큼은 될 수 없다는 것이 드러나는 부분이다. 이처럼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조씨에게는 친가가 '우리'의 세계였고 친밀함의 공간이었다.

하지만 남편의 죽음 이후 시가의 성격이 바뀐다. 시가는 이전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친정 언니와 함께 했던 사적인 장소, 슬픔을 공유하고 친밀감을 나누는 공간으로 변한 것이다. 표면적으로는 살아있는 것이 죄이며 죽어 마땅한 목숨이라 말하지만 그녀가 쓰고 있는 내용은 더 이상 죽음을 마땅하게 여기는, 유교 윤리가 바탕이 되는 세계라고만 보기 어렵다. 그녀는 시아버지를 모셔야 하며, 친정아버지에게 불효를 할 수 없어 종사하지 못한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그녀가 그리는 삶의 세계는 의무로 점철된 공간이기 보다는 시할머니·시어머니와 슬픔을 나누고, 이들의 돌봄을 받는 새로운 친밀감의 세계이다. 이 세계에서 그녀들은 과거 조씨가 어머니의 죽음 이후 언니와 그러했던 것처럼, 아들 또는 남편을 상실한 슬픔의 공동체를 이룬 것이다.[49] 이처럼 <자기록> 텍스트 전반에는 유교 사회가 요구하는 규범과 윤리가 강조되는 동시에, 서로의 상처를 이해

48) "내 또ᄒᆞᆫ 품은 디통으로 본ᄃᆡ 심ᄉᆡ 비고ᄒᆞ거ᄂᆞᆯ 구당의 도라오매 다만 존젼을 시측ᄒᆞᆯ ᄯᅳᆯᄅᆞᆷ이오 ᄉᆞ실의 물너오매 그림재를 ᄉᆞᆯ오며 심ᄉᆞ를 논ᄒᆞᆯ ᄒᆞᆫ낫 져ᄆᆡ 업ᄉᆞ니 무미ᄒᆞ고 울억ᄒᆞ미 심ᄒᆞᆯ ᄲᅮᆫ 아냐", 176쪽; "슬하의셔 각ᄉᆡᆨ 희롱과 ᄆᆞ양 유ᄌᆞ를 먹어 유ᄋᆞ의 모양을 ᄒᆞ면 존괴 또 완농울히 져ᄀᆞᆺ치 ᄒᆞ샤 근〃졀〃ᄒᆞ시다가 혹 물녀 ᄀᆞᆯ오샤ᄃᆡ 오ᄇᆡ 반ᄃᆞ시 모ᄌᆞ의 졍을 보고 샹회ᄒᆞ리로다 ᄒᆞ시고 부ᄌᆡ 또ᄒᆞᆫ 날을 보매 슈렴ᄒᆞᆯ 제 만코 내 과연 모ᄌᆞ의 ᄌᆞ별ᄒᆞ신 텬뉴을 뵈올 적 흠복 감창ᄒᆞ오믈 면치 못ᄒᆞᆯ너라", 181쪽.

49) "내 오ᄂᆞᆯ노붓허 결단을 파ᄒᆞ여 내 ᄒᆞᆫ 목숨을 네게 붓치고 내 죽기 젼 네 몸을 보호ᄒᆞ여 앗갑고 불샹 참졀ᄒᆞᆫ ᄆᆞᄋᆞᆷ을 만의 ᄒᆞ나흘 풀니〃 다시 념녀치 말나", 238쪽; "내 침소의 쥬야 동쳐ᄒᆞ샤 내 울면 우ᄅᆞ시고 내 먹으면 잡ᄉᆞ올ᄉᆡ ᄒᆞᆫ 술과 ᄒᆞᆫ 먹음을 마초아 ᄒᆞ시며 내 소ᄒᆞ면 ᄀᆞᆺ치 ᄒᆞ시고 일동일ᄉᆞ의 호흘을 차착지 아니시니 실노 내 울고시브나 오래 우디 못ᄒᆞ고 먹기 슬흐나 아니 먹디 못ᄒᆞ여 이러ᄐᆞᆺ 샹의보명ᄒᆞ여 시일을 보내니 텬지간 참극ᄒᆞᆫ 졍경이 아니리오", 238쪽; "(조뫼) 참통 원극ᄒᆞ시미 타별ᄒᆞ시므로써 우리 고부 권년 보호ᄒᆞ시믈 더옥 ᄌᆞ별이 ᄒᆞ시고 내게ᄂᆞᆫ 더옥 원혹 참졀ᄒᆞ믈 겸ᄒᆞ샤 혈심곡진ᄒᆞ시니 엇디 ᄀᆞ골감은이 아니리오", 239쪽.

하고 보듬는 친밀감이 비중 있게 기술되고 있다.

따라서 이상의 내용을 보면, <자기록>에 나타난 궁극적인 대립은 남성과 여성의 대립도 시가와 친가의 대립도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텍스트는 궁극적으로 삶의 의미를 공적인 관계, 즉 쓸모에서 찾는가 아니면 사적인 친밀감에서 찾는가라는 질문을 제기한다. 조씨는 사회적 관계 속에서 자신의 삶-투생-과 죽음-종사-의 이유를 찾는 한편으로, 사적인 관계 속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한다. 아버지에 대한 효 혹은 시부모님에 대한 의무로 삶을 택했다 볼 수 있지만, 그녀는 언니 그리고 시어머니와 슬픔을 공유했기에 어머니와 남편을 잃고도 삶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이다. 요컨대 <자기록>은 죽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하는 공적 의무와 삶을 버티게 하는 사적 관계 사이의 갈등을 그린 것으로, 인간은 사회적 필요 또는 의미로 존재하는가, 아니면 사적인 친밀감과 애정 때문에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텍스트라 할 수 있겠다.

4. 참여로서의 글쓰기와 물러남으로서의 글쓰기

지금까지는 조씨의 삶의 기록이 운명이란 주어진 것인가 아니면 만들어진 것인가, 자아는 개인으로 인식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사회적인 용어로 인식되어야 하는가[50] 라는 두 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서술되었다는 점을 주로 살펴보았다. 근대 이전에 자아는 주어진 것이면서 사회적인 것으로 이해되었다. 이 세계에서 개인은 남성 혹은 여성이면서 양반 혹은 상민인 자신에 대해 의문이나 회의를 갖지 않았다. 하지만 <자기록>에는 주어진 것이면서 사회적인 것으로 이해되는 자아와 함께 만들어진 것이면서 개인으로 이해되는 자아, 그 본성을 개인의 특정 행위를 통해 이해하는 자아에 대한 인식이 담겨있다. <자기록>은 이 질문들에 대해 명확

50) 조너선 컬러, 앞의 책, 174~175쪽.

한 대답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 질문이 필요 없던 세계에서 이 질문이 중요해진 세계로의 이동을 재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텍스트라고 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자기록>의 이러한 특징이 조씨의 글쓰기 행위 및 글쓰는 존재의 의미에 대한 인식과 어떠한 관련을 맺는가에 대해 논해보려 한다. 다시 말해서 <자기록>에 담긴 여성의 글쓰기 행위 그리고 글쓰는 여성이라는 존재에 대한 이해를 알아보고자 한다.

먼저 텍스트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남편의 치료 과정 부분을 살펴볼 텐데, 아래 표는 이 부분에 나타난 조씨의 행동을 정리한 것이다.

<표2. 남편의 병세에 따른 풍양 조씨의 대처>

연/월	행위·상태 주체	남편의 병세 및 그에 대한 친가와 시가의 대처	남편의 병세에 대한 풍양 조씨의 대처
무신년 (1788) 가을	남편	추위에 과거장에서 병을 얻음	치질기운이 심해져서 괴로워했으나 위중한 병이 아니고, 본래 있던 병이라 10월 6일 친정에 갔다. 10월 19일에 와보니 남편이 더 심해져 있었다.
경술년 (1790)	남편	시아버지가 추수 때문에 고향에 내려가 남편 홀로 할아버지 곁에서 모심. 사랑은 추위가 자심했고 남편은 추위를 참지못했으나 10월 첫 추위까지 견딤. 11월 추운 날 국수를 먹고 체하여 설사하게 됨. 기운이 없고, 매일 설사를 수차례하며, 추위를 참지 못하여 점점 쇠약해짐	10월 22일 시아버지가 돌아오셔서 남편이 조씨 침소에 지내 다행스러워 함. 11월 3일 조씨가 친정에 가자 남편은 다시 사랑으로 감. 11월 23일에 돌아와 보니 안색은 나빠졌으나 그리 대단치는 않음.
	시어머니	빌린 돈으로 양즙을 해줌	치마를 팔아 언니에게 자웅고를 해 보내달라 부탁함
(1791) 정월 초사흗날	시어머니	사돈께 육미원 두어 제 지어달라 부탁	초사흗날 친정 세배가서 시어머니 말씀 전함
1월 20일	시어른	20일 무렵 의원 박중윤에게 데려가고, 22일부터 강다탕을 썼으나	27일에 친정에서 돌아옴

		나아지지 않았고, 육미탕도 체해서 여섯첩만 썼음. 나아지지 않아 다시 약으로 다스리지 않음	
	시어른, 남편	피접을 불안해 함	조씨가 시어른들에게 쌍동으로 정할 것을 말하고 허락 얻음
	남편	남편 믿는 마음을 갖고, 몇몇 병세가 덜해짐. 처음 며칠을 병세 호전되는 듯했으나 이내 악화	2일 밤부터 점괘에 따라 목욕 재계하고 칠일 밤을 빎
	시할아버지	본가에서 밤마다 찬물을 무릅쓰고 목욕하고 밤이 다하도록 빎	14일 밤 돌아가신 어머니 묘실에서 줄글로 보호해주기를 빎
3월 15일	친정아버지	이태만이란 의원을 청해옴 됴듕익기탕으로 구할 수 있다 말함	의원에게 더 보이려고 아버지에게 밤중에 남편 상태 고함
3월 22일	남편	병세 더욱 악화	남편을 따르기로 결심.
24일	남편	집으로 돌아옴.	명복이 말하길 지극한 정성으로 삼일 치재하여 26일 자시에 조왕제를 하라고 하여 따름.
	친정큰아버지	쑥찜을 권함	쑥찜을 함
	친정아버지	남편에게 미음, 계고 등을 먹임	파루를 치면 급히 의원이라도 데려오기를 부탁함 의식을 잃은 남편에게 생혈을 내려함
	남편	의식을 회복하여 조씨가 자결하려던 것으로 오해하고 불편한 기색 드러냄	다리를 주무르다가 시숙이 들어와 물러난 것이 마지막.

위의 표를 보면 조씨는 남편의 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역할을 담당하는 듯 보이지 않는다. 남편의 치료에 관한 기록은 남편에 대한 것이면서 동시에 남편의 병을 대하는 시어른들과 친정아버지에 관한 서술이기도 한데, 이들에 대해 서술할 때 조씨는 가족들의 말이나 행동을 매우 자세하게 기록하면서도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는 거의 적지 않고 있다.

조씨는 가족들의 부탁이나 지시를 따를 뿐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지를 드러내어 행동하지 않았던 듯하다. 그녀가 남편의 치료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 것은 큰아버지의 말을 듣고 쑥뜸을 뜨거나 기도를 한 것 정도이다. 그녀는 남편의 병세와 관계없이 때가 되면 친정에서 지내기를 반복했으며, 시가와 친가를 오가며 시어머니가 친정에 부탁하는 말이나, 친정에서 시댁에 제안하는 말 등을 전하는 역할을 했다. 조씨가 이처럼 남편의 치료에 소극적이었던 것은 집안에서 딸 혹은 며느리에게 주어진 위치와 역할을 따른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조씨는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조씨의 이와 같은 태도는 그녀가 비판하고 있는 시어른들의 태도와 매우 유사하다. 앞서 시어른들의 태도를 운명에 순응하는 소극적 태도라 정리했는데, 조씨의 행동 역시 주어진 역할에 충실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시어른들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조씨는 자신의 과거 밖에서 그것을 객관적으로 서술하는 관찰자처럼 자신을 그리고 있으나 결국 자신이 비난했던 무책임한 태도, 운명에 순응적인 태도로 사건 속에 관여하고 있다. 그녀는 시어른들의 행위를 방관이라 비판하면서 스스로 방관자의 태도를 반복하고 있다.

조씨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을 때, 자신이 아픈 어머니를 위해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았던 것을 후회한다. 아무것도 몰랐기에 어머니 곁을 지키지도 못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그녀는 남편이 아팠던 동안 어머니 때와 다르지 않은 태도를 보였다. 그녀는 남편의 치료에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았으며 양가 어른들의 말을 따를 뿐이었다. 하지만 남편의 회복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된 후부터, 그녀는 이 문제의 당사자로서 자신의 역할을 능동적으로 결정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한다. 그녀는 죽음을 결심하고, 의식을 잃은 남편에게 생혈을 내려는 행동을 하고, 혈서를 써서 남편의 묘에 넣으려한다. 이전까지는 수동적으로 주어진 역할을 따랐다면 이제는 능동적으로 자신의 역할을 찾아 행하려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조씨의 태도가 이렇게 바뀌었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아무 것

도 없었다. 그녀는 적극적으로 사회가 자신에게 요구한(다고 믿는) 것을 행하려 했지만, 사회는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 그녀는 죽음을 결심했지만 자신의 의지대로 죽을 수 없었다. 남편이 떠난 후 세상은 그녀에게 살아남아 줄 것을 원했지만 그녀는 이러한 요구를 아무런 죄의식 없이 기꺼이 받아들일 수 없었다. 한편으로 그녀는 평소 자신의 신념대로 남편과 함께 세상을 떠나고 싶었으나 이 역시도 선택할 수 없는 처지였다. 그녀는 이전처럼 세상의 기대에 순응할 수도, 이전과는 다르게 자신의 의지대로 행동할 수도 없게 되었다. 그녀는 투생이라는 처지를 받아들이지도, 종사라는 행위를 능동적으로 성취하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갇힌 존재가 된 것이다.

이처럼 삶과 죽음 어느 한쪽에도 완전히 속할 수 없었던 조씨는 글을 쓴다. 글쓰기 행위는 자신의 현재 삶에서 물러나 과거에 머물며 과거를 보고 기록하는 작업이다. 따라서 조씨의 글쓰기는 현재를 사는 것이라 보기 어렵다. 글쓰기를 현실로부터의 물러남으로 볼 수 있기에 글쓰기 행위는 삶에 대한 수동적이며 방관적인 태도와 관계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녀가 죽지 않고 살기를 훔쳤기에 가능한 행동이라는 점에서, 그녀의 글쓰기는 '삶'의 행위라 할 수도 있다. 글쓰기는 또 다른 현실, 즉 남편을 따라 생을 버려야 한다는 당대의 윤리 규범을 따르지 않은 행위라는 점에서 적극적이고 참여적인 삶의 태도를 가리킨다. 조씨는 글쓰기라는 삶의 형태를 취하여, 단순히 과거로 도피하거나 현실에서 물러난 것이 아닌 그것을 '선택'하는 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물러남'이라는 적극적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었다. 즉, 조씨의 글쓰기는 그것 자체로 당대 질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행위이다.

요컨대 우리가 조씨를 관찰자로 볼 수 있는 것은 그녀가 현재가 아닌 과거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고, 행위자로 볼 수 있는 것은 죽지 않기를 선택했기 때문이다. <자기록>에는 자아를 타고난 것으로 이해하여 어떠한 행위도 운명을 바꿀 수 없다는 인식과, 인간의 적극적 행위가 타고난 운명을 개척할 수 있다는 인식이 상충하는데, 조씨의 글쓰기 행위 또한 이

같은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다.

조씨가 글쓰기 주체로서 자신을 인식하는 방식 역시 앞의 논의와 연결해보면, 앞서 삶의 의미를 공적인 관계 또는 의무에서 찾는가 사적인 친밀감 혹은 개인적인 욕구에서 찾는가라는 의문이 <자기록>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고 보았는데, 글쓰기 주체로서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는가라는 문제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검토가 가능하다. 가령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글쓰는 여성은 당대 사회에서 쓸모있는 자아인가 쓸모로부터 벗어난 자아인가. 글쓰는 주체는 사회적 지위를 부여받은 존재이거나 사회적 관계망 속의 일원으로 규정되고 있는가 아니면 독립적이고 사적인 주체로서 작가의식을 지닌 존재로 여겨지는가. 조씨는 사회적 필요에 의해 <자기록>을 쓴 것인가 아니면 개인적인 욕망에 따라 쓴 것인가.

<자기록>에는 글쓰기에 관한 언급이 서너 차례 나올 뿐이기에, 글쓰기에 대한 서술자의 발화에서 그에 대한 생각을 모두 읽어내기는 어렵다. 다만 서문 격에 해당하는 글의 앞부분에 다음과 같은 서술이 있어 조씨가 <자기록>을 쓴 이유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추측할 수 있다.

> 즘쳐ᄒᆞᆫ 가온대 셕ᄉᆞ를 츄모ᄒᆞ니 셰〃히 목하의 버러 궁텬무ᄋᆡᄒᆞᆫ 셜우미 새로울ᄉᆡ 나의 유시의 어던 바 힝젹만 대강 긔록ᄒᆞ나 긋째 내 유튱ᄒᆞᆯ 쓴 아니라 우리 ᄌᆞ당의 만션이 죡ᄒᆞ샤 통쳘ᄒᆞ신 식견과 활달ᄒᆞ신 도량의 침원ᄒᆞ신 지혜 빅ᄉᆞ의 그 ᄆᆞᄃᆡ와 ᄲᅢ예 맛당히 ᄒᆞ샤 사ᄅᆞᆷ의 ᄉᆡᆼ각 밧기 만흐시니 엇지 능히 다 형용ᄒᆞ야 긔록ᄒᆞ리오 겨오 만의 ᄒᆞ나ᄒᆞᆯ 긔록ᄒᆞᆯᄉᆡ 부군의 과인히 인ᄌᆞ명쳘ᄒᆞ신 두어죠건을 올니고 다시 나의 궁ᄒᆞᆫ 팔ᄌᆞ와 결발의 늣거온 셜우므로써 일월이 깁흐매 능히 긔억디 못ᄒᆞᆯ지라 셩혼초로붓허 부ᄌᆞ의 환후시말과 봉변지ᄉᆞᄉᆡ지 대강을 긔록ᄒᆞ야 나의 ᄉᆡᆼ젼 두고 목젼ᄉᆞᄀᆞᆺ치 닛지 말며 ᄯᅩ 후ᄉᆡᆼ비 네 일을 알과져 잠간 긔록ᄒᆞ나 졍신이 쇼삭ᄒᆞ고 심의 황난ᄒᆞ여 ᄌᆞ셔ᄒᆞ믈 엇지 못ᄒᆞ다[51]

[51] 조씨, 「자기록」, 『조씨삼대록』 권1,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1쪽.

위의 인용에서 조씨는 심란하여 자세히 적을 수는 없지만 자신의 경험을 "닛지 말며" 또 뒷사람들에게 "네 일을 알과져" 이 글을 쓴다고 밝히고 있다. 자기 삶을 가능한 빠짐없이 기록하는 것이 <자기록>을 쓰는 목적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당시에 여성이 자신의 생활을 산문 형태로 기록하는 행위는 그리 드문 일은 아니었다. <미암일기>를 통해 "양반가 여성들이 경제 상황, 가계 지출과 수입 등을 종이책자에 기록해 두었음을 짐작"[52]할 수 있으며, 유만주(兪晩柱)의 흠영(欽英)에 나오는 자료로부터 "17세기 후반 이후 시헌력(時憲曆)이 일반에게 널리 보급됨에 따라 일상 가정사의 일들을 달력에다가 기록하는 일기 쓰기 행위가 널리 성행했으며, 여성들 사이에서도 가정 내의 일들을 달력에 적어나가는 일기 쓰기가 많이 이루어졌을 것"[53]이라는 추측도 할 수 있다. 또한 조선시대에 행장, 행록, 묘지명 등을 기록할 때 돌아간 이를 가까이에서 지켜보았던 여성들이 이를 기록하거나 초안을 마련하는 일이 있었다[54]는 점을 생각해볼 때, 당시에 여성의 글쓰기가 사회적인 요구나 필요에 따라 행해졌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자기록> 역시 이러한 문화의 영향을 받은 텍스트라 하겠다. 조씨는 행장이나 행록을 쓰는 것과 유사한 의도, 즉 자신과 가족들의 삶을 기록하여 전하기 위하여 <자기록>을 기술했으며, 일기 형식의 글은 아니지만 남편의 치료 과정을 날짜까지도 매우 섬세하게 기록한 것을 보면, 조선 후기 일기 쓰기가 성행한 것에도 영향을 받은 듯하다.

하지만 조씨가 <자기록>을 쓴 이유를 반드시 이와 같은 공적인 목적 때문이라고만 볼 수는 없을 것 같다. 행장이나 행록 등은 죽은 이의 덕을 기억하고 기리기 위해 쓴 글이며 따라서 비교적 유교적인 이념에 충실한

51) 148~149쪽.
52) 정우봉, 「남평 조씨 병자일기의 성격과 작품 공간」,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5,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2, 215쪽.
53) 위의 책, 216쪽.
54) 김경미, 「18세기 양반여성의 글쓰기의 층위와 그 의미」,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1,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5, 18쪽.

내용들을 담고 있다. 또한 이 글들은 애도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 뒤에 글쓴이와 망자는 완전히 분리되는 것을 전제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자기록>의 경우는 이와 다르다. 조씨는 남편을 애도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이들의 죽음으로 자기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음을 토로하고 그럼에도 살아야 하는 이유를 구하기 위해 이 글을 쓴 것이다. 이런 그녀에게 글쓰기는 곧 자신의 험한 운명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 내 ᄎᆞ마 엇디 이 텬지붕탁ᄒᆞᄂᆞᆫ 시죵을 셩언ᄒᆞ여 긔록ᄒᆞ리오 내 ᄉᆡᆼ명이 긔험하고 삼ᄉᆡᆼ의 죄악이 지듕ᄒᆞ여 ᄉᆡᆼ년수십의 쳡봉화고ᄒᆞ고 다박험조ᄒᆞᄃᆡ 무지완쳔이 불ᄉᆞ투ᄉᆡᆼᄒᆞ여 여구ᄉᆡᆼ세예 이ᄅᆞᆯ 긔록ᄒᆞ니 궁독흉완ᄒᆞ미 날 ᄀᆞᆺᄒᆞ니 어ᄃᆡ 이시리오

그녀는 죽지 못하고 살아 자신의 처지를 기록하는 것이 "궁독흉완"하다며 한탄한다. 이 글을 쓰고 있다는 것은 자신이 죽지 못하고 생을 훔쳤다는 것과 같은 말이며, 이 때문에 그녀에게 살아있다는 것은 곧 글을 쓴다는 것과 동일하게 인식된다.

그리고 이때의 글쓰기는 사회적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살아남은 나는 곧 글을 쓰고 있는 나 라는 인식은 자신을 사회적 필요가 아닌 개인적 행위 혹은 개인적 욕구를 가진 존재로 이해하는 것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살아있지만 현재를 살지 못하며 그렇다고 죽음을 택할 수도 없는 그녀가 할 수 있었던 유일한 행위였던 글쓰기는 그녀를 개인적인 존재로 자리매김한다. 그리고 이러한 글쓰기를 행하는 주체로서의 자아는 더 이상 아내 혹은 며느리처럼 사회적 관계에 의해서만 규정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점에서 특별하다.

여성의 글쓰기 행위는 사회적 요구나 필요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글쓰기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자발적인 행위라고도 할 수 있다. 특히 <자기록>의 경우처럼 남편이 죽고 난 뒤, 삶을 버리지 못한 이들에게는 글쓰기 자체가 글쓰는 자아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행위일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자기록>은 공적인 요구와 필요에 따라 글을 쓰는 주체와 개인적 감정이나 생각의 표현 그것 자체로 자신의 정체성을 획득하는 주체를 동시에 보여주는 텍스트라고 할 수 있다.

5. 맺음말

지금까지 이 글에서는 <자기록>에 구현되는 갈등의 양상을 두 가지로 구분하여 검토하였다. 그리고 다시 이 갈등을 중심으로 글쓰기 행위 및 글쓰기 주체의 문제에 대해 논하였다. 그리하여 텍스트의 말하기와 보여주기 간의 불일치[55]는 운명을 이해하는 양면적 태도에서 비롯하며, 글쓰는 자아를 타인과의 소통을 목적으로 행위하는 존재 혹은 불행한 운명에 대한 표상 그 자체로 인식하는 것은 개인을 사회적인 존재로 보는 관점과 사적인 존재로 이해하는 관점에 각각 대응된다고 보았다.

이 글에서 검토한 바에 따르면 조씨가 종사와 투쟁 사이에서 갈등을 지속하는 것 그 자체가 조씨의 삶이며 삶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그녀에게 글쓰기는 삶으로부터의 물러남이라는 의미에서 종사와 같고 물러남이라는 행위의 적극적 실천이라는 의미에서 투생과 같다. 그렇다면 글쓰는 행위는 문제를 해결하거나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에 내재하는 갈등을 반복하는 것이라 하겠다. 그녀의 글쓰기 방식은 곧 그녀의 삶의 방식과 같아서, 글쓰기 과정이 곧 의심과 회의의 과정이고 그것이 죽음도 삶도 택하지 못한 조씨의 처지 그 자체라는 것이다. 결국 이 텍스트에서 서술자는 자신이 던진 질문의 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구현한다.

---

55) 조씨는 시댁 어른들의 무책임하고 무능한 태도가 남편의 이른 죽음을 가져왔다고 '말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친정아버지의 모든 노력이 대부분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왔음을 '보여줌'으로써 남편 죽음의 원인을 문면에 기술한 것처럼 온전히 시댁 어른들의 무력함에 두지는 않는다.

조씨와 같은 처지에서 자기 서사를 남긴 여성들은 살아있는 동안은 죽음을 택하지 못한 자신을 책하고, 살아야 하는 자신을 변명하며, 죽음 혹은 삶의 이유를 글쓰기를 통해 적극적으로 구하는 이들이다. 죽어야 하는 이유 혹은 살아야 하는 이유 어느 것도 납득하지 못한 이들, 삶도 죽음도 적극적으로 취하지 못하는 이들은 글쓰기 행위를 통해 떠난 이들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한편으로는 살아있는 자기 존재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처럼 사회적인 필요에 의해 글을 쓰는 여성 주체의 모습과 글을 쓰는 행위를 통해 자기 존재의 의미를 구하는 주체의 모습을 동시에 발견할 수 있다는 점이 조선 후기 여성의 자기 서사가 가지는 공통된 특징이자 의의가 아닌가 한다. 남편 혹은 자식을 잃고 사회적인 자신의 위치를 상실했다고 여기는 여성들은 삶과 죽음 사이에서 갈등한다. 그리고 삶을 결심한 이들의 자기 서사는 곧 이들의 삶 자체가 된다. 현재의 삶에서 죽음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얻지 못하고, 그렇다고 죽음을 택하지도 못한 이들은 과거를 기록하면서 기록을 이유로 삶을 이어간다. 또한 자신의 죽음 혹은 삶의 이유를 글쓰기를 통해 찾아가는 과정 자체를 자기 존재의 의의로 삼는다. 이런 그녀들에게 글쓰기가 갖는 수행적 의미는 자신의 행위와 존재의 모순적이고 양가적인 양상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것이므로, 그녀들에게 기록을 멈춘다는 것은 곧 삶을 멈추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자료

풍양 조씨, 『자기록』, 김경미 역주, 나의 시간, 2014.

2. 단행본

김경미, 「기억으로 자기 역사를 새긴 보통 여성, 풍양조씨」, 『조선의 여성들』, 돌베개, 2004, 240~261쪽.

김정경, 『조선후기여성한글산문연구』, 서강대학교출판부, 2016, 321쪽.

류준경, 「의유당관북유람일기 해제」, 『의유당관북유람일기』, 신구문화사, 2008, 32쪽.

Culler, Jonathan, 『문학이론』, 이은경·임옥희 역, 동문선, 1999, 174~175쪽.

Lejeune, Philppe, 『자서전의 규약』, 윤진 역, 문학과 지성사, 1998, 5쪽.

3. 논문

김경미, 「18세기 양반여성의 글쓰기의 층위와 그 의미」,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1,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5, 18쪽.

김경미, 「『자기록』의 저자 풍양조씨 연구」,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8,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4, 121~146쪽.

김정경, 「여성이라는 운명에 대한 자각과 글쓰기」, 『여성문학연구』 34, 한국여성문학회, 2014, 307~318쪽.

김보현, 「『자기록』, 삶과 죽음에 대한 반성적 글쓰기」, 『서강인문논총』 46, 서강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6, 267~296쪽.

박 경, 「『자긔록』을 통해 본 조선후기 열부관과 여성의 대응」, 『여성과 역사』 19, 한국여성사학회, 2013, 229~261쪽.

박옥주, 「풍양 조씨의 『ᄌᆞ긔록』연구」,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3,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1, 307~318쪽.

박혜숙, 「여성적 정체성과 자기서사-『ᄌᆞ긔록』과 『규한록』의 경우」, 『고전

문학연구』 20, 고전문학회, 2001, 239~272쪽.
정우봉, 「남평 조씨 병자일기의 성격과 작품 공간」,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5,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2, 215쪽.
조수미, 「<자기록>과 열녀전에 나타난 가족 행동 묘사와 그 의미」, 『민족문화논총』 61,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15, 269~293쪽.
홍인숙, 「『즈긔록』에 나타난 일상적 생애 서술의 특징과 효과」,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5,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2, 241~273쪽.
홍인숙, 「<자기록>에 나타난 관계성 서술 방식의 의도와 효과」,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33,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6, 67~95쪽.

Abstract

The Self-awareness of Women and the Performative Meaning of Writing in *Jagirok*

Kim, Jeong-kyung

In this article, I tried to answer the question of what the writer of the *Jagirok* wrote and what the meaning of the act is. To do this, Chapters 2 and 3 examine the contradictory self-perception of the author and the perception of the world in *Jagirok*. In Chapter 4, we have linked it to the performative meaning of the act of writing itself.

In chapter 2, the part about 'the death of the husband', which occupies the largest part in *Jagirok*, was examined based on the opposing attitude and the parallel narrative aspect of the husband's home and home. As a result, I found that a contrasting response to the husband's treatment of the husband's home and home could be read as showing a conflicting attitude toward fate.

In chapter 3, I examined the aspect of Cho's process of choosing life, not death, through the opposition between son/daughter and husband/wife. As a result, I found that the ultimate conflict in *Jagirok* comes from the question of finding the meaning of life in public relation or private intimacy rather than opposition of male/female.

In Chapter 4, I have tied these discussions to Cho's writing behavior and the way she perceives herself as a writing subject. As a result, I found that writing is an active practice of withdrawal

from the life as well as withdrawal from the life. To Ms. Cho writing means following death and stealing life. On the other hand, Cho's recognition of herself as a subject of writing was revealed as a conflict between public duty and personal relationship. In short, it can be said that *Jagirok* is a text that asks whether a person exists because of social necessity or personal intimacy.

Key words : *Jagirok,* performativity, self-narration, confucian ethics, a virtuous woman

■ 본 논문은 2018년 7월 25일에 접수되어 2018년 7월 29일부터 8월 5일까지 소정의 심사를 거쳐 2018년 8월 10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